

Barcelos
PORTUGAL
Sukhothai
THAILAND
Paducah
GABROVO
BULGARIA
Al-Ahsa
SAUDI ARABIA
Limoges
FRANCE
Jinju
KOREA

바르셀로스 시-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창의성

바르셀로스시는 포르투갈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약 12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61개의 교구들이 약 380km²의 면적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개 시골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바르셀로스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의 순례와 깊이 연관되어 20세기 포르투갈 역사에 등장한다. 천혜의 풍광, 독특한 문화적, 전통적,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더불어 공예와 민속 예술의 다양성은 오늘날까지 도시의 균형적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왔다.

지역 경제는 전통적인 방직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지역 노동 인구의 약 절반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노동 인구의 약 8%가 공예 활동을 주요 직업으로 갖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상당한 비율이 부업으로 공예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르셀로스는 혼합 영농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 Barcelos Municipality—Panoramic of the historical center

큰 우유 생산지이기도 하고, 또한 유명한 비노 베르데(Vinho Verde)를 생산하는 와인 제조에도 매우 열성적이다.

2017년부터 이 도시는 공예 및 민속 예술 분야에서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 자격에 걸맞게, 이 도시는 공예기술을 지원하고 바르셀로스 장인 커뮤니티의 기반이 되는 지식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활동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거나 참여해왔다.

국제 공예 및 민속 예술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의 이번 간행물에서 우리는 2020/2021년에 우리 시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 공예 커뮤니티 지원 시스템은 공예 활동에 필요한 장비, 기계, 원자재 및 기타 구조물등에 대해 최대 2,500유로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16명의 장인들이 혜택을 받았다. 장인 개인이나 제작 단체는 2년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공예 및 민속 예술을 위한 공예 장려 시스템은 박람회 및 전시회에 장인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유통 경로를 창출하고 바르셀로스 수공예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소규모 수공예 페어들이 2020년 8월과 9월 매주 목요일에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2021년에는 7월 1일부터 9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었다.
- 홍보 비디오: 바르셀로스의 발견(2020, <https://55secrets.com/guia-de-viagem-barcelos/>)은 지역 관광 발전의 기초 자료로서, 지역 관광 잠재력, 지속 가능성, 창의성, 생태 관광 및 체험에 초점을 맞춘 영화이다.
- 2021년 3월, 바르셀로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장인과 창작자들이 직면하게 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We Create Hope(우리는 희망을



© Barcelos Municipality—Ceramic rooster painting creative workshop

창조한다)"라는 비디오를 제작하였다(<https://en.unesco.org/creative-cities/events/barcelos-supports-its-creators-through-we-create-hope-campaign>).

-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일반인들과 지역 장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작 체험 워크샵이 열렸다. 이 워크샵들은 2021년 6월부터 다시 재개되었다.
- 바르셀로스는 2020년 세계 관광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념하였다. 예를 들어, 창의 워크샵, 창의 관광에 관한 온라인 컨퍼런스, 멋진 이미지 세계로의 여행과 같은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또한 참가자들과 지역 장인들이 다양한 공예 활동을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한 작품, 일곱 예술..."이라는 제목의 워크샵도 이루어졌다.
- 2020년 10월 13일 순례자의 날에는, 바르셀로스시의 관광 안내소와 중세 탑에서 포르투갈 산티아고 길을 걷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자신만의 수탉을 그려보게 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 2020년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지역의 전통문화제품을 전시하고 방문객들이 지역의 유명한 수공예 장인들이나 와인 생산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시는 팬데믹 기간 동안 40명 이상의 장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홍보할 수 있었다. 2021년에도 마켓이 다시 열려지기를 기대한다.
- 바르셀로스시는 2020년에 50명의 장인 또는 공예 단체로부터 800,000유로에 상당하는 수공예품을 공공 구매함으로써 지역 장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이 제품들은 전국의 상업 공간에 나뉘어 전시되고, 경제 동력으로서 지역 공예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위에 소개된 조치들은 상징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도시의 장인과 창작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다. 바르셀로스시는 지역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이러한 주요 문화적, 창조적 가치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민족 문화의 보존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보호와 더불어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바르셀로스 창의도시 팀

수코타이, 태국

수코타이 “공예 프로젝트 만들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

서론

“공예 프로젝트 만들기”(Craft the Craft)는 2019년 10월 30일부터 수코타이의 UCCN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수코타이 UCCN 공예 및 민속 예술 부문 5개년 실행 계획(2021~2025)에 따른 이 프로젝트는 수코타이의 공예가와 창업자들로 하여금 양질의 제품과 우수성을 달성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프로젝트의 목표가 문화 기반 관광과 창작 및 공예 분야의 소득 창출을 크게 감소시킨 코로나19 위기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관광 행정 지정 구역(DASTA Area4)의 지원을 받아 나레수안 대학교(Naresuan University) 건축예술디자인 학부에서 수행하였다.

공예활동 만들기

2021년 4월 11일 수코타이 스리윌라이 리조트에서 교육 및 상호 교류 워크숍이 열렸다. 수코타이 지역 및 부근의 공예가와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5가지 주요 활동이 이루어졌다. 참가자는 총 43명(공예가 23명, 전문가 10명, 스태프 10명)이었다. 이 활동은 보건부의 코로나19 통제 및 예방 지침에 맞춰 계획되고 실시되었다; 등록 전 참가자 전원의 체온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새 마스크로 교체하고, 대회장에